

연결과 소통,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해저터널 종합정보지

PEACE TUNNEL

magazine

통권 11호
SEPTEMBER 2012 **9**

대 생각에는 | 정헌영 부산대 공과대학장
한일터널, 한국도 기초조사 필요하다

인물탐방 | 권태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
“한일터널은 한국을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부상시킬 기회”



COVER STORY

해저터널시대 개막, 무엇이 문제인가



발행일 2012년 9월 1일

발행인 이용흠
편집장 권오문
기자 정성수
사진 이장환
디자인 장인선
인터넷 김주홍
독자관리 안현열

발행처 세계평화터널재단
150-036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7번지

등록 2010년 9월 3일
등록번호 영등포 마 00016

전화 02)3471-7698
팩스 02)3471-7694



본지는 잡지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과 한국잡지협회의 잡지 판매공정경쟁 규약을 준수합니다.

* 대륙과 대륙을 연결, 육상 교통시대를 열 어가는 해저터널 건설이 세계 곳곳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표지 사진은 해저터널의 주요 선행사례로 손꼽히는 세이칸터널과 당시 굴착에 사용됐던 장비들.

C O N T E N T S

커버스토리 | 해저터널시대 개막, 무엇이 문제인가

- 05 “해저터널 통해 글로벌 육상 교통네트워크 완성될 것” | 최성호
- 09 “고수압·대심도 대응 위한 기술개발이 필수 과제” | 김상환
- 14 “건설 비용 줄이고, 경제효과 극대화 방안 강구해야” | 마강래
- 18 영불터널, 200년 도전의 위대한 산물 | 허재완
- 24 “한일 양국 배타성에 갇혀 한일터널 건설 失機하면 서로 손해” | 후지하시 겐지
- 28 “한일·베링해협터널은 한반도·세계 평화의 지름길” | 이용흠

- 32 내 생각에는 | 한일터널, 한국도 기초조사 필요하다 | 정현영
- 34 특별기고 | “자원寶庫 시베리아 활용 통로될 것”
| 아슬람벡 아슬라하노프
- 38 인물탐방 | 권태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
“한일터널은 한국을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부상시킬 기회”
- 44 해외소식 | 지금 미국에서는
“미·중·러, 베링해협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때”
| 조지 쿠말
- 48 NEWS & ISSUE | 한일터널 건설 부산시민이 나섰다
- 50 발행인의 편지 | 지금이 그 때다 | 이용흠

정기구독 안내

● 정기 구독료

- 1년 정기구독료 18,000원
- 정가 3,000원

● 구독 안내 전화

02)3471-7698

● 인터넷구독신청

info@fpu.kr

連結と疎通、平和の道を開く海底トンネルの総合情報誌

PEACE TUNNEL

Magazine

通巻 11 号

JULY 2012 9

私の考えは/チョン・ホニョン釜山大学校工科大学長
「韓日トンネル、韓国も基礎調査が必要だ」

人物探訪/ゴン・テシン 国家競争力強化委員会副委員長
「韓日トンネルは韓国をアジアの中心国家に
浮上させる機会」

カバーストーリー

海底トンネル時代の幕開け、何が課題か

目次

発行日 2012年9月1日

発行人 イ・ヨンム

編集長 ケオン・ムン

記事 チョン・ソンス

写真 イ・ジヤンファン

デザイン チャン・インソン

インターネット キム・ジュン

読者管理 アン・ヒョンヨ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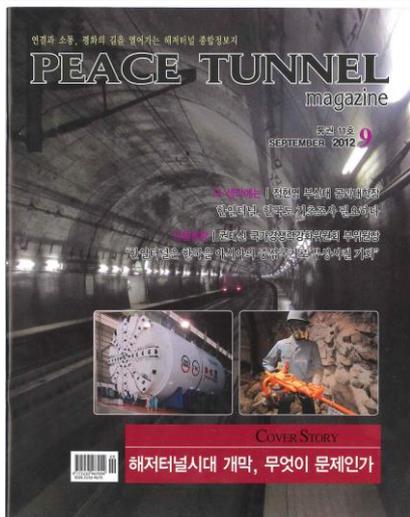
発行所 世界平和トンネル財団
150-036 ソウル市永登浦区永登浦洞
6街7番地

登録 2010年9月3日

登録番号 永登浦 마 00016

電話 02-3471-7698

FAX 02-3471-7694



大陸と大陸を結ぶ陸上交通時代を海底トンネルの建設が世界のあちこちで活発に進められている。表紙の写真は海底トンネルの主な先行事例として名高い青函トンネルと当時の掘削に使用された装備。

カバーストーリ 海底トンネル時代の開幕、何が課題か

- 05 海底トンネルでグローバルな陸上交通ネットワークを完成させること / チェ・ソム
- 09 高水圧・大深度対応の技術開発が必須課題 / キム・サンファン
- 14 建設費用を減らし、経済効果の極大化する方法を講究すべきだ / マ・ガン
- 18 英仏トンネル、200年挑戦の偉大な産物 / ホ・ジエツ
- 24 韓日両国の排他性に阻まれて韓日トンネル建設の時機を失えば双方とも損害 / 藤橋健次
- 28 韓日・ベーリング海峡トンネルは韓半島・世界平和の近道 / イ・ヨンム
- 32 私の考えは / 韓日トンネル、韓国も基礎調査が必要 / チョン・ホニョン
- 34 特別寄稿 / 自然の宝庫シベリア活用の通路になるもの / イランベク アスハノフ
- 38 人物探訪 ゴン・テシン 国家競争力強化委員会副委員長 「韓日トンネルは韓国をアジアの中心国家に浮上させる機会」
- 44 海外消息 / 今、アメリカではアメリカ・中国、ロシア、ベーリングプロジェクトに積極的に参加するとき / ジョージ・ケマル
- 48 NEWS&ISSUE 韓日トンネル釜山市民が立ち上がった
- 50 発行人の手紙 今がその時だ / イ・ヨンム

定期購読案内

- 定期購読料
 - ・ 1年定期購読料 18000ウォン ・ 定価 3000ウォン
- 購読案内電話 02-3471-7698
- インターネット申請 fpu@beringproject.com